**푸른 꽃 - ‘어파이어‘ 감상평**

2022131009 독어독문학과 염산하

불을 보지 못했다. 나도 그처럼, 빛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작품에 끝에 자신의 불씨를 발견했지만, 나는 주말 내내 그러지 못해다. 항상 그처럼 나 역시도 부정해 왔고, 끝내 그러한 부정을 마주한 레온이 부러우면서 동시에 미웠다. 이번 감상평을 통해, 내가 ‘어파이어’에서 찾은 불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 **불**

불은 열과 빛을 배출하는 산화작용이다. 쉽게 말해, 불은 열과 빛이다. 그리고 이 열과 빛의 구조는 작품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작품 속에 드러나는 열과 빛의 구조는 과학적이라기보단, 페촐트 감독이 그것에 가지고 있는 인상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열

열은 내면의 진실이다. 닿으면 뜨겁기에, 작품에서 누구는 이것을 끝까지 회피하려 하고, 누구는 이것을 마주하고 삶으로 끌어안아 결국 뜨거움에 못 이겨 죽음을 맞이한다. 레온은 자신의 열을 억압한다. 정확히 말하면 모르쇠하고 부정하며 회피한다. 그의 열은 자신의 직업의 있어서의 능력, 본능적인 성적 욕망, 그리고 이러한 열들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메타적인 사실이다. 펠릭스와 데비테의 열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욕망, 즉 사랑이다.

: 빛

작품 속에서 빛은 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열이 없는, 즉 불이 없는 인물이 하나 있다. 바로 나디야이다. 작품 내내 나디야가 불을 상징하는 빨간 옷을 입고 등장하기에, 대부분은 나디야를 불로 해석한다. 하지만, 그녀는 불이 아니다. 그녀는 명백히 빛이다. 그녀가 왜 빛인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작품 속의 빛은 두 가지로 나뉘어 형상화된다. 하나는 기만의 빛, 다른 하나는 진리의 빛이다.

기만의 빛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빛에 대한 인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빛을 진리로, 진실로 받아들이곤 한다. 하지만,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빛은 진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가린다. 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옛 속담도 있지 않은가. 한 곳에서만 빛이 날 때, 우리는 주변을 전혀 볼 수 없게 된다. 그것이 바로 기만으로서의 빛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만으로서의 빛은 작품 속에 레온을 중심으로 등장한다. 자신의 일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신의 예술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그는 다른 사람의 직업들을 비난한다. 그러한 열을 마주하기 두려워, 그는 다른 사람들의 직업을 오인하며, 그들의 것을 무작정 비난하는데, 이것은 그가 가진 열등감으로 우리에게 비친다. 하지만, 이 열등감으로 보이는 행동 아래에는 열을 마주하기 두려워 기만의 빛으로 사람들을 오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 결정적으로 나오는 기만의 빛은 바로 나디야이다. 그는 그녀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언제 그녀에게 처음으로 호감을 느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휴양지의 집으로 이사 온 첫날, 그는 나디야의 속옷을 보고, 또 그녀의 성관계 소리를 듣는다. 그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에게 묘한 호감을 느끼고, 그녀를 뚫어져라 훔쳐본다. 그리곤 작품이 진행되며, 레온은 나디야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디야를 향한 레온의 사랑을 느끼는 감정은 기만의 빛이다. 그는 자신의 억압된 성적 욕망과 예술가로서의 기질,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열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진실들을 빛으로써 감추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녀를 사랑한다는 거짓된 마음 아래에 모두 가려버린다.

진리의 빛의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기만의 빛만 바라보고 있는 자의 시야를 향해, 막을 수 없이 새어 들어온다. 진리의 빛은 기만의 빛으로 진실들을 가리고 있는 사람에게, 외부의 진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외부의 진실이 때로는 그에게 내부의 진실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레온에게 이 진리의 빛은 바로 나디야 그 자체이다.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그의 능력과, 자신의 직업, 그리고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헬무트의 심각한 병, 펠릭스와 데비테의 죽음, 마지막으로 그가 본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진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일깨워준다. 이렇게 작품 속에 빛은 이중적인 기능을 하며, 하나는 열을 회피하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수단으로, 하나는 열에 다가가게 도와주는 수단으로써 기능하게 된다.

: 물

작품에 불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불과 대비되는 반대의 위치에, 바다 즉 물이 있다. 그러나 물 역시 불과 같은 것이다. 먼저 이 두 가지가 가지는 성질에 주목해야 봐야 한다. 사실 물과 불이 대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는 비슷한 것이 많다. 작품 속에서 인물들이 물과 불을 다루는 행동들이 유사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바다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행동,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바다를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 행동은 작품 속에서 불을 다루는 것과 같다. 특히 이 다루는 행동에서 불과 물이 같다는 것은 펠릭스의 포트폴리오 주제인 세 가지 사진이 그것을 더 증명한다. 또한 바다도 불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뉜다. 작중, 밤에 바다에서 빛이 난다는 이야기를 나디야와 레온이 나눈다. 둘이 보러 가진 않지만, 작품 후반부 레온이 혼자 밤바다에 가 바다에서 나는 빛을 본다. 바다 역시 빛과 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그 물은 열과 같은 것이다. 처음엔 레온의 친구들이 그에게 바다에 가자고 제안을 한다. 그 역시도 내면에서는 그곳을 가고 싶지만, 그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레온도 그들과 함께 바다에 간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제 그에게 바다에 들어가자고 제안한다. 그때 레온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다. 빛을 제외한 나머지, 그것은 다 불의 열과 같은 것이다. 인물들이 입고 나오는 옷에 주목하면, 빨간 옷을 입는 나디야는 불을, 짙은 남색 옷을 입는 레온은 물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레온은 물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가 나타내는 물은 차가운 그의 감정과 열이다. 결국 그것도 불의 하나이다.

* **결말**

불을 중심으로 작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을 해석해 보았다. 이제 그 상징들의 의미를 가지고 작품의 결말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다.

: 세 가지 길

작품에 불을 다루는 태도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불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불을 훔쳐보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을 마주 보는 것이다.

작품에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두 명이다. 펠릭스와 데비테, 그리고 그들은 불에 들어간다. 그들은 자신들의 열을 인정하고 마주 보고 드러낸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이라는 열을 그들의 삶으로 끌어안고, 결국 그러한 열에 휩싸여 죽음을 맞이한다. 여기에서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화염 속에서 누구보다 아름답게 낭만적으로 삶을 끝냈다. 이것은 나디야가 우리에게 두 번이나 낭독해 주는 하이네의 시 ‘아스라’의 낭만적 사랑과 같은 것이다.

훔쳐보기는 작품에서 레온만이 하는 행동이다. 뇌리에 박힌 레온의 훔쳐보기는 3번인데,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듯, 나디야의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욕망을 품은 레온이 다음날 아침 그녀를 훔쳐보는 것이다. 두 번째 훔쳐보기는 휴양지 집에 도착한 다음날 밤, 또다시 나디야의 성관계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한 성관계 소리를 듣는 레온은 성적 욕망이라는 열을 회피하고자 밖으로 나가서 잔다. 그리고 밖에 나가지만, 잠이 오지 않고 결국 나디야와 성관계를 한 상대인 데비테의 알몸을 훔쳐본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목한 그의 훔쳐보기는 데비테를 처음으로 집으로 초대한 날 열을 피하기 위해 저지른 무례한 행동들로 그들로부터 소외된 날에 일어난다. 레온은 혼자 집에 남아있고, 나머지 세명이 배드민턴과 비슷한 놀이를 하는 것을 레온은 창문으로 훔쳐본다. 난 이 세 가지 훔쳐보기가 모두 그의 억압된 성적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발현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의 훔쳐보기는 성적 욕망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레온을 배제한 세명이 배드민턴을 치고, 그다음에 바로 펠릭스와 데비테가 관계를 나누는 것에서 레온은 그 장면을 세 명이서 관계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훔쳐보기란 내면의 진실, 즉 열을 억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의 뿌리에 있는 열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며 기만의 빛을 보는 것이다. 훔쳐보기와 관련하여 더 보충을 하자면, 헬리콥터로 은유되는 벌을 들 수 있다. 영화 속에서 레온이 자신의 열을 회피하고, 기만의 빛을 볼 때 벌 소리가 들린다. 헬리콥터는 불 중에서도 태우는 성질이 있는 열을 끄기 위해서 출동하는 데, 레온이 훔쳐보기를 할 때 벌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그 훔쳐보기 행동의 뿌리에 열이 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레온의 길

그렇게 훔쳐보기만 하던 레온은 결말에 이르러, 자신의 불과 마주 보게 된다. 그렇게 마주 보게 되는 변화의 과정은 나디야, 즉 진리의 빛이 그를 지속적으로 비추었기 때문이다.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점점 가면서, 레온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진실들을 나디야를 통해 마주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사람이라 생각했던, 헬무트의 암까지 알아채지 못하면서 레온의 기만의 빛을 통한 회피 시도는 점점 끝을 향해간다. 그리고 그때, 레온은 마지막 회피 시도를 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외부의 진실과 내부의 진실을 알아채지 못했던 모든 것을 나디야를 사랑하기 때문으로 돌린다. 그렇게 그는 그녀에게 기만의 사랑 고백을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펠릭스와 데비테의 진실한 사랑으로의 죽음이라는 진실뿐이었다. 그의 마지막 시도까지 끝나고, 영화는 레온의 작품을 읽는 것으로 넘어간다. 그 소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펠릭스와 데비테의 시신을 본 레온의 무감각하며 차가운 비인간적인 감정이다. 혹자는 이 부분이 레온이 무정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비인간적인 감정이 그의 열인 것이다.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드는 진실한 감정이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소설에 적음으로써 마침내 자신의 열을 마주 본다.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산불의 확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때마다 인물들은 ‘바다의 바람이 그것이 이 집으로 오지 못하게 막아줄 거예요.’라고 말한다. 그것이 맞다. 작품 끝까지 휴양지의 집으로 산불은 오지 않았다. 주변을 태워 점점 확산한다는 불의 속성이 레온에게는 먹히지 않았다. 그에겐 불이 없었다. 헬무트는 레온의 소설을 읽고 마지막 부분에 두 장의 사진을 넣자고 제안한다. 하나는 나디야가 바라보고 있는 바다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나디야를 훔쳐보고 있는 뒤에서 찍은 사진이다. 여기에 나디야와 마주 보고 있는 사진만 없다. 마지막이 되어서, 나디야는 빛이 아니라 레온의 불이 된다. 그의 가슴속에 가장 차가운 불꽃이 피어난다. 작품 말미, 갑작스레 등장한 나디야를 풀숲에 들어가 훔쳐보다, 당당히 나와 그녀와 마주 보는 장면은 이 작품의 백미이다. 자신의 불을 마주 보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 작품은 끝난다.

* **감상**

개인적으로 레온이 가슴속에 불을 피우며 끝나는 결말이 아쉬웠다. 물론 사람이 일련의 시련을 통해 계속 성장해나가는 인간이라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리석었던 자가 성장하며 끝나는 진부한 이야기라는 인상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레온의 내면 묘사는 정말 감탄했다. 작품 보는 내내 나는 레온이었고, 레온은 나였다. 특히 열을 끊임없이 회피하는 것과 시신을 보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은 부분은 정말 나를 보고 작품을 만들었을까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또한 음악의 사용, 공간의 대비를 활용한 연출은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인물들을 중심으로, 레온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라도 나머지 인물들의 사용이 너무 도구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작품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작품은 나디야가 레온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었고 내가 불에 한걸을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것으로 나의 기억에 남은 작품이다.